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유능감의 매개를 중심으로*

전 자 배**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 및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52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을 유형화한 결과, 4개 집단(교내·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교외 동아리 참여군, 참여저조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중 참여저조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교내·외 동아리활동의 참여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자아유능감, 협업능력 점수는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이 가장 높았으며, 교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참여저조군의 순으로 감소했다. 또한, 자아유능감, 협업능력의 점수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동아리활동이 자아유능감을 매개하여 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교외 동아리활동만이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했으며, 교내 동아리활동은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원인 탐색, 동아리활동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만이 청소년의 자아유능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내 동아리활동과 지역사회, 청소년단체와의 연계 및 개별적 책무성을 고려한 동아리활동의 설계를 본 연구의 실천적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기조는 유지하되,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동아리활동, 협업능력, 자아유능감, 긍정적 청소년 발달, 발달자산 프레임워크,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8)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도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토론해주신 연보라 박사님과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강사, jb0317@snu.ac.kr

I. 서론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OECD는 1997년부터 청소년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평생에 걸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는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interacting in heterogeneous groups)’를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그 하위요소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고 협력하는 능력(the ability to cooperate)을 제시하였다(김기현 외, 2010). Education 2030(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The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에서도 ‘협력/협동’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다(이소연,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둘 이상의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해내는 협업능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주의적 문화, 집단 간 갈등이 극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협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들은 보다 강조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국의 교육과정에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협업능력을 교과역량으로 선정하였다.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는 능력은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목표로 하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 PYD) 접근법에서도 주목해왔다. PYD 접근법에서는 발달자산(developmental assets)을 보다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개인적 성장 및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Sherrod, Torney-Purta & Flanagan, 2010). 이에 PYD 접근법에서는 청소년들이 개인 내적·외적 자산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집단적 성격의 활동이다. PYD 접근법에서 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건설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개인 외적 자산(external assets)에 해당한다. 유사한 영역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은 동아리를 조직하고, 그 속에서 함께 집단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동아리활동은 교육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기(년)제, 정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등과 연계되어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시민으로의 성장에 미치는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의 참여 그 자체가 협업능력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 동아리활동은 개인의 자아유능감 증진에 기여하고, 이는 성공적인 협업의 밑거름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PYD 접근법에서도 개인 내적 자산(internal assets) 중 하나로 긍정적 정체감(positive identity)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동아리의 조직유형별로 상이한 효과를 보고하는 선행연구(이승렬, 2013; Rogoff, Baker-Sennet, Lacasa & Goldsmith, 1995; Youniss, McLellan & Yates, 1997)를 반영하여, 학교 내에서 전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내 동아리와 학교 밖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교외 동아리의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외적 자산인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중요성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고, 정교화된 정책수립을 도울 것이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들의 교내·외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들의 교내·외 동아리활동 참여는 협업능력을 증진시키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들의 교내·외 동아리활동 참여는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협업능력을 증진시키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협업능력

협업은 둘 이상의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Bedwell et al., 2012)을 의미한다. 협업은 특정 구성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내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호의존하며 협력할 때 가능하다(Johnson, Johnson & Stanne, 2000).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가진 지식과 기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협업능력의 필요성은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학생 간 협업을 강조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있다(Griffin & Care, 2012).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협업능력을 교과역량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도 2015년도 평가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을 측정하였다.

성은모 외(2013)는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역량 중 하나로 대인관계역량을 도출하였으며, 그 하위 요인 중 하나로 협동을 제시한다. 대인관계역량은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며,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고, 집단 내 갈등이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중 협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이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집단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성은모 외, 2013)을 의미한다. 여기서 협동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집단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협업능력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동에 대한 성은모 외(2013)의 개념적 정의¹⁾ 및 측정도구를 차용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협업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있다(강인애, 정은실, 2010; 박윤정, 장선영, 2015). 협동학습, 협력학

1) 협업능력은 크게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역량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① 집단축진은 구성원이 서로 격려하며 개개인이 맡은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량을 의미한다. 구성원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돕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능력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② 팔로워십은 집단의 성공적인 결과 산출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팔로워십을 가진 구성원은 집단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을 충실히 하여 도움이 되고, 집단 내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③ 갈등문제해결역량은 구성원들과 집단 내 문제에 대한 정보 및 해결 방안 등을 공유하여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집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역량을 의미한다(성은모 외, 2013).

습, 협력적 성취과제 수업모형,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학습 등의 교수학습방법은 주로 교과 내용을 활용하여 지식 습득이라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연대의식, 책임감, 존중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진성연, 최병연, 이훈정, 고영남, 이영미, 2010; Johnson, Johnson & Stanne, 2000). 선행연구의 초점과 달리 본 연구는 비교과활동에 해당하는 동아리활동의 참여가 청소년들의 협업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교과활동은 교과활동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발달을 보완하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며, 그 중에서도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2. 청소년 동아리활동

동아리는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듬이라는 의미로, 취미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이다(김정주, 김용대, 성기원, 2003).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아리활동은 다른 집단적 성격의 청소년활동과 차별성을 갖는다. 현재 동아리활동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단체(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해양소년단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 종교단체, 지역사회(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회관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교육 정책의 변화와 함께 동아리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교과 지식과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창의적 체험활동²⁾과 자유학기(년)제는 공통적으로 동아리활동을 강조한다. 정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서도 자립적, 상호 협력적 창의 융합

2)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여 창의적인 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교육부, 2016).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2013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 외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문서에서 동아리활동은 “서로 같은 흥미,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집단 활동”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동아리활동은 예술·체육활동, 학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의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된다(교육부, 2017).

인재로의 성장을 위해 동아리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동아리활동의 반경이 학교 안에 머물지 않도록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조남익, 2010).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 안팎에서 운영되는 동아리활동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청소년 집단 활동과 달리 지속적,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동아리활동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학교 내 동아리는 교내 공식동아리(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학교 외 동아리는 교외 공식 동아리(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모임)로 그 범위를 한정짓고자 한다.

3.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의 관계

서로 다른 목소리와 생각들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다. 청소년의 시민참여를 지향하는 긍정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이하 PYD) 접근법³⁾에서도 협업능력을 주목하고 있다.

동아리활동은 PYD 접근법에서 제시하는 외적 자산 중 하나이다. PYD 접근법은 청소년들이 가진 자산을 외적 자산과 내적 자산으로 나누고, 자산별로 네 개의 하위영역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발달자산 프레임워크(developmental assets framework)는 Benson(1997)과 Leffert 등(1998)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① 외적 자산(external assets)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발달 경험 및 기회를 의미하며 부모,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하위 영역으로 지지(support), 권한

3) PYD 접근법은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 발전을 이끄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가진 발달자산은 시민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자산형성 패러다임(asset building paradigm) 하에서, PYD 접근법은 청소년 개인이 가진 자원 및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주목하였다. 내적, 외적 자산을 보다 많이 가진 청소년일수록 개인적 성장 및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전제 하에, PYD 접근법은 청소년들의 내·외적 자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들을 약물, 학교 중퇴, 폭력, 임신 등 사회 내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그들을 교정시키고자 했던 기존의 결점 축소 패러다임(deficit reduction paradigm)과는 상반된 시각이다. 즉, PYD 접근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존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Sherrod, Toney-Purta & Flanagan, 2010).

(empowerment), 경계와 기대(boundaries and expectations), 건설적인 시간의 활용(constructive use of time)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동아리활동은 네 가지 하위 영역 중 '건설적인 시간의 활용' 범주에 포함된다. ② 내적 자산(internal assets)은 청소년들이 가진 심리적 강점으로, 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자양분으로 기능한다. 내적 자산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발달시키는 특징을 지니며 학습 참여(commitment to learning), 긍정적 가치(positive values),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ies), 긍정적 정체감(positive identity)으로 구성된다. 스스로를 능력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자아유능감은 긍정적 정체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유능감(self-competence)은 개인이 다양한 과제들을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Tafarodi와 Swann(1995)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자아존중감이 자기호감(self-liking)과 자아유능감(self-competence)의 두 개 축으로 구성되고 경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단일차원적인 자아존중감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였다. 여기서 자기호감은 사회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정서적인 판단, 타인의 수용과 인정을 통한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자아유능감은 크고 작은 목표의 달성을 통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발간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elf-competence는 자아유능감 외에도 자아효능감, 자기능력, 자아역량, 자신감 등으로 해석한다(김민정, 2016). 본 연구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는 경험,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지각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아유능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외적 자산에 해당하는 동아리활동은 개개인의 취미와 관심으로 시작되지만, 향후 참여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축적해나가는 하나의 장으로 역할 한다(모상현, 조남익, 이진숙, 2012). 동아리활동은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활동과 달리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구성원 공동의 노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은 동료들과 함께 동아리를 직접 운영하고, 발표, 전시 등의 행사를 준비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경험을 하면서,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이에 본 연구는 동아리활동이 자아유능감을 매개로 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동아리활동 참여가 협업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자아유능감이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역할 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진행되었다.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KCYPS 2018은 지역과 도시규모를 고려한 다단계층화 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 크기를 결정하였다.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동아리활동 관련 문항이 설문지에 포함된 중학교 1학년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자아유능감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란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분석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부모 모두 한국 출신이며,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동거하는 중학년 1학년 2,526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변인

1)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

독립변인인 청소년 동아리활동 참여는 학교 안팎에서 진행되는 동아리활동의 참여 정도로 측정하였다. 학교 내 동아리는 교내 공식 동아리(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학교 외 동아리는 교외 공식 동아리(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모임)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동아리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을 보다 구조적으로 확인하고자, 분석 대상자를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 방법은 사전에 정해진 군집의 수에 따라 분석 대상을 군집에 할당시키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이다. 교내·외 동아리활동 참여 점수를 활용하여 유형별로 각 응답자를 분류하였다. 적절한 군집의 수는 각 군집별 표본 수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군집 내의 유사성과 군집 간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는지의 기준으로 판단한다(이학식, 임지훈, 2005). 군집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변화시키면서 군집에 소속된 대상의 숫자를 비교하였다. 4개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군집별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되었으며, 군집별 결과 해석이 용이하였다. 이에 최종군집 수를 4개로 결정하고, 각 유형별 청소년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를 살펴보기 위한 교내·외 동아리활동 변인은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리커트 척도 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2) 협업능력

종속변인인 협업능력은 집단 촉진(6문항), 팔로워십(3문항), 갈등문제해결(5문항)의 3가지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며 총 1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다. 각 하위 영역별로 평균 점수를 구하였으며, 협업능력의 점수는 세 가지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를 합한 값이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결과, 협업능력 14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941이었다. 세부적으로 하위 영역의 신뢰도 점수를 살펴보면, 집단촉진 6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89, 팔로워십 3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21, 갈등문제해결 5문항의 Cronbach's alpha 값은 .886이었다.

3) 자아유능감

매개변인인 자아유능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척도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자신이 가진 역량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자아유능감은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두 가지 범주 중 하나이다. 자아존중감은 역량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를 바라보는 자아유능감(self-competence)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기호감(self-liking)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Mruk, C. J., 2013; Tafarodi & Milne, 2002; Tafarodi & Swann, 1995).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Rosenberg의 10개 문항 중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인식을 묻는 자아유능감 영역(3, 4, 5, 7, 9번)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다.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826이었다. 문항 점수는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 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업성취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선정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학교 성적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연속변인으로 간주하여 투입하였고, 불연속변인인 성별은 더미처리(남성=1)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변인들의 분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을 보다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을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로 성별, 학업성취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일원분산분석(ANOVA)과 교차분석(χ^2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동아리활동 참여가 협업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두 변인의 관계에 자아유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화기중치를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
분석에 활용한 문항

	변수명	하위 영역	KCYPS 2018 문항	내용
독립 변인	교내 동아리활동 교외 동아리활동		YACT2A01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YACT2A02	교내 공식 동아리(방송반, 컴퓨터반 등 학교에서 인정한 모임) 교외 공식 동아리(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원하는 모임)
종속 변인	협업 능력	집단 촉진	YPSY5A01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거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
			YPSY5A02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YPSY5A03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YPSY5A04	그룹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YPSY5A05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YPSY5A06	그룹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팔로 워십	YPSY5A07	그룹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YPSY5A08	그룹의 리더가 아니더라도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룹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YPSY5A09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갈등 문제 해결	YPSY5A10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YPSY5A11	그룹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YPSY5A12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YPSY5A13	그룹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YPSY5A14	그룹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매개 변인	자아유능감	YPSY3A0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YPSY3A0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YPSY3A0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YPSY3A0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YPSY3A0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역코딩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PYD의 관점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외적 발달 자산인 동아리활동의 참여는 내적 발달자산인 긍정적 정체감의 향상에 기여하고, 이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협업능력을 갖춘 시민으로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 특징을 살펴본 뒤, 동아리활동 참여가 자아유능감의 향상을 매개로 협업능력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1.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 2,526명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응답한 데이터를 매칭시켜 활용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교내 동아리의 경우, 44.3%(1,120명)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연 5회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34.8%(879명)의 청소년들은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교외 동아리의 경우, 78.7%(1,989명)의 청소년들이 교외 동아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10.8%(274명)의 청소년들은 연 1-2회 교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연 3회 이상 교외 동아리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0.4%(263명)를 차지했다.

표 2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

변인	척도	빈도(명)	비율(%)	변인	척도	빈도(명)	비율(%)
교내 동아리	없다	879	34.8	교외 동아리	없다	1,989	78.7
	1-2회	324	12.8		1-2회	274	10.8
	3-4회	203	8.1		3-4회	92	3.6
	5회 이상	1,120	44.3		5회 이상	171	6.8
	합계	2,526	100		합계	2,526	100

2.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특징

동아리활동 참여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을 유형화하고, 집단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군집 1>은 201명(8.0%), <군집 2>는 1,122명(44.4%), <군집 3>은 62명(2.5%), <군집 4>는 1,141명(45.2%)으로 이루어졌다.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교내·외 동아리 모두 참여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였고, <군집 2>는 교외 동아리 참여는 저조하지만 교내 동아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청소년들, <군집 3>은 군집 2와 반대로 교내 동아리 참여는 저조하지만 교외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군집 4>는 교내·외 동아리 참여도가 모두 낮은 청소년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군집 1>은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 <군집 2>는 ‘교내 동아리 참여군’, <군집 3>은 ‘교외 동아리 참여군’, <군집 4>는 ‘참여저조군’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네 가지 참여 유형 중 참여저조군의 비율이 45.2%로 가장 높았다.

표 3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 분류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교외 동아리 참여군	참여저조군
빈도(명)	201	1,122	62	1,141
비율(%)	8.0	44.4	2.5	45.2

우선,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표 4 참조). 성별에 따른 동아리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남학생 중 참여저조군은 46.8%(610명)로 네 개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42.6%(555명)는 교내 동아리 참여군이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교내 동아리 참여군이 46.4%(567명)로 네 개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동아리 참여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교내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동아리 참여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chi^2_{(df=3)}=3.735, p=.292$)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동아리활동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내 동아리 참여군의 비율이 47.4%(545명)로 네 개

유형 중 가장 높았다. 교내·외 동아리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중 또한 9.4%(108명)로 나타났다. 한편, 중위권 이하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참여저조군의 비중이 48.9%(447명)로 4개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하위권 학생들 또한 참여저조군의 비중이 53.3%(178명)로 가장 높았다. 즉,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인 학생일수록 교내 동아리, 교외 동아리활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성적에 따라 동아리 참여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_{(df=3,2393)}=12.16, p<.001$).

둘째, 연구 대상자의 가정배경 특성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동아리 참여 양상이 상이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 교내·외 동아리 모두 적극 참여하는 비율이 9% 이상이었다.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교내 동아리 참여군은 57.7%(82명)로 상대적으로 높고 참여저조군은 32.4%(46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달리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경우, 참여저조군의 비율은 47.8%(417명)로 네 개 유형 중 가장 높았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동아리 참여 유형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F_{(df=3,2464)}=6.49,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동아리 참여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_{(df=3,2517)}=.42, p=.742$). 전체 연구 대상자 중 76.2%(1,920명)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교내 동아리 참여군은 44.6%(857명), 참여저조군은 44.4%(852명),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은 8.4%(161명), 교외 동아리 참여군은 2.6%(50명)를 차지했다.

셋째,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에 따라 자아유능감($F_{(df=3,2523)}=4.91, p<.01$)과 협업능력($F_{(df=3,2523)}=21.17, p<.001$)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표 5 참조). 사후 검증 결과,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과 참여저조군 간 존재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아유능감, 협업능력의 평균점수는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 교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참여저조군 순으로 감소하였다. 협업능력의 하위영역 중 집단축진과 갈등문제해결의 점수를 살펴보았을 때, 교외 동아리 참여군이 교내 동아리 참여군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4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별 연구 대상자의 특징

단위: %(명)

변인	빈도 (명)	비율 (%)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					전체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교외 동아리 참여군	참여 저조군		
성별	남성	1303	51.6	8,1(106)	42,6(555)	2,5(32)	46,8(610)	100(1303)
	여성	1223	48.4	7,8(95)	46,4(567)	2,5(30)	43,4(531)	100(1223)
		2526	100					
학업 성취도	하	334	13.9	5,4(18)	39,2(131)	2,1(7)	53,3(178)	100(334)
	중	914	38.1	7,2(66)	42,1(385)	1,8(16)	48,9(447)	100(914)
	상	1150	48.0	9,4(108)	47,4(545)	3,3(38)	39,9(459)	100(1150)
		2398	100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	873	35.4	6,1(53)	43,1(376)	3,1(27)	47,8(417)	100(873)
	대졸	1451	58.8	9,1(132)	44,2(642)	2,1(31)	44,5(646)	100(1451)
	대학원졸	142	5.8	9,2(13)	57,7(82)	0,7(1)	32,4(46)	100(142)
		2466	100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하층	332	13.2	6,3(21)	45,8(152)	1,5(5)	46,4(154)	100(332)
	중층	1920	76.2	8,4(161)	44,6(857)	2,6(50)	44,4(852)	100(1920)
	상층	269	10.7	7,4(20)	41,3(111)	2,6(7)	48,7(131)	100(269)
		2521						
합계	2526	100	8,0(201)	44,4(1122)	2,5(62)	45,2(1141)	100(2526)	

표 5

동아리활동 참여 유형별 차이 분석

		전체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교외 동아리 참여군	참여 저조군	F	사후 검정
학업 성취도	M	3.44	3.62	3.52	3.66	3.33	12.16	1)4
	SD	0.92	0.86	0.93	0.89	0.90	***	2)4
어머니의 교육수준	M	5.05	5.27	5.10	4.85	4.98	6.49	1)4
	SD	1.02	0.94	1.03	0.97	1.01	***	
가정의 경제적 수준	M	2.97	2.98	2.96	3.01	2.98	0.42	
	SD	0.54	0.52	0.51	0.48	0.57		
자아유능감	M	3.08	3.20	3.10	3.15	3.05	4.91	1)4
	SD	0.56	0.54	0.58	0.61	0.53	**	

		전체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교외 동아리 참여군	참여 저조군	F	사후 검정
협업능력	M	9.06	9.79	9.11	9.26	8.87	21.17	1)2, 4 2)4
	SD	1.57	1.62	1.56	1.90	1.50	***	
1) 집단축진	M	2.90	3.20	2.91	3.01	2.84	23.04	1)2, 4
	SD	0.57	0.59	0.56	0.66	0.56	***	
2) 팔로워십	M	3.13	3.36	3.17	3.16	3.06	18.07	1)2, 4 2)4
	SD	0.57	0.57	0.59	0.70	0.54	***	
3) 갈등문제 해결	M	3.02	3.23	3.04	3.10	2.97	13.21	1)2, 4 2)4
	SD	0.57	0.61	0.57	0.62	0.55	***	

*** $p<.001$, ** $p<.01$, * $p<.05$

3.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의 관계

동아리활동이 협업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두 변인의 관계를 자아 유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7 이상의 상관계수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독립→매개), ②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매개→종속). ③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독립→종속), ④ 매개변인이 경로에 추가될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값(β 값)이 매개변인이 추가되기 전의 영향 값(β 값)보다 작아야 한다. 이때 매개변인이 추가되기 전보다 독립변인의 영향 값(β 값)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면 부분매개효과, 독립변인의 효과가 사라지면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고 본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교내·외 동아리활동의 참여정도와 인구 통계학적 변인(성별, 학업성취도,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매개변인인 자아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교외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다($\beta=.056, p=.005$). 상대적으로, 교내 동아리활동($\beta=.010, p=.602$)은 자아유능감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므로 교내 동아리활동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아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beta=.129, p<.001$), 학업성취도($\beta=.247,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090, p<.001$)이 자아유능감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1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0.8%($F=47.203, p<.001$)이었다.

2단계에서는 협업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교내·외 동아리활동은 모두 $p<.05$ 수준에서 협업능력을 유의미하게 증진시켰다. 성별($\beta=-.067, p<.01$), 학업성취도($\beta=.258,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081,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beta=.044, p<.05$)도 협업능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협업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2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12.0%($F=53.033, p<.001$)이었다.

3단계에서는 교내·외 동아리활동 및 자아유능감이 종속변인인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교내 동아리활동($\beta=.045, p<.05$), 교외 동아리활동($\beta=.105, p<.001$)과 자아유능감($\beta=.431, p<.001$)이 모두 협업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성별($\beta=-.123, p<.001$), 학업성취도($\beta=.151,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beta=.042,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업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R^2)은 28.6%($F=133.347, p<.001$)이었다. 자아유능감 변인을 추가한 3단계 회귀모형은 2단계 회귀모형보다 설명력이 16.6%p 증가하였다.

4단계에서는 자아유능감이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의 관계 사이에서 부분매개로 역할 하는지 판단하였다. 자아유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교외 동아리활동의 2단계, 3단계 표준화회귀계수 값을 비교하였다. 교외 동아리활동의 회귀계수는 2단계($\beta=.129$)보다 3단계($\beta=.105$)에서 더 작았으며, 협업능력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아유능감은 교외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변인임을 관찰할 수 있다.

표 6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1단계			2단계			3, 4단계		
		독립 → 매개			독립 → 종속			독립, 매개 → 종속		
		동아리활동 → 자아유능감			동아리활동 → 협업능력			동아리활동, 자아유능감 → 협업능력		
		b	SE	β	b	SE	β	b	SE	β
독립 변인	교내 동아리활동	.004	.008	.010	.057 *	.023	.050	.052 *	.021	.045
	교외 동아리활동	.036 **	.013	.056	.234 ***	.036	.129	.191 ***	.032	.105
매개 변인	자아유능감						1.204 ***	.052	.431	
통제 변인	성별 (남성=1)	.143 ***	.022	.129	-.209 **	.060	-.067	-.381 ***	.055	-.123
	학업성취도	.151 ***	.012	.247	.439 ***	.034	.258	.258 ***	.032	.151
	어머니의 교육수준	.050 ***	.011	.090	.125 ***	.031	.081	.065 *	.028	.042
	가정의 경제적 수준	.034	.021	.033	.127 *	.059	.044	.086	.053	.030
(상수)		2.078	.082		6.191	.228		3.690	.232	
R ²		.108			.120			.286		
adjusted R ²		.106			.118			.284		
ΔR^2								.166		
F		47.203***			53.033***			133.347***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교내 동아리활동, 자아유능감, 협업능력의 매개모형에서 Z값은 .500($p = .309$)로 보고되었다. 교외 동아리활동, 자아유능감, 협업능력의 매개모형에서 Z값은 2.750($p < .01$)로 보고되었다.

일련의 통계 결과는 청소년의 협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내·외 동아리활동의 참여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교외 동아리활동으로 인해 향상된 자아유능감은 협업능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7

매개효과 유의도 검증

변인 경로	Z	p
교내 동아리활동 → 자아유능감 → 협업능력	.500	.309
교외 동아리활동 → 자아유능감 → 협업능력	2.750**	.002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 및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유형화하였다(표 2 참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8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78.7%는 교외 동아리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절반에 가까운 47.6%의 청소년들은 교내 동아리에 2회 미만으로 참여했다. 교내 동아리활동에 1년에 5회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절반을 조금 넘는 44.3%에 불과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3-18세 청소년 2,998명 중 청소년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해양소년단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15.9%이었다(여성가족부, 2017). 상당히 낮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평균 군집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동아리 참여 양상을 유형화한 결과(표 3 참조),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은 8.0%(201명), 교내 동아리 참여군은 44.4%(1,122명), 교외 동아리 참여군은 2.5%(62명), 참여저조군은 45.2%(1,141명)를 차지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승렬(2013)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이 더 낮은 수준으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렬(2013)의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 중 50.8%가 교내 동아리에 참여하였으며, 15.8%는 교내, 교외 동아리에 동시에 참여하였고, 어떠한 동아리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23.5%를 차지했다. 즉, 4명 중 1명이 어떠한 동아리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절반 정도의 청소년만이 교내 또는 교외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동아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PYD 관점에서도 청소년의 시민적 성장에 기여하는 동아리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원인 탐색을 위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아리 참여 유형에 따라 협업능력($F_{(df=3,2523)}=21.17, p<.001$)과 자아유능감($F_{(df=3,2523)}=4.91, p<.01$)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참조). 협업능력과 자아유능감 점수 모두 교내·외 동아리 참여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교외 동아리 참여군, 교내 동아리 참여군, 참여저조군의 순서로 점수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외 동아리활동 참여가 교내 동아리활동 참여에 비해 청소년들의 협업능력과 자아유능감 향상에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교내 동아리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로 구성된다. 또한, 선배로부터 동아리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외 동아리에 비해 교내 동아리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교외 동아리의 경우,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동아리를 이룬다. 또한, 대부분의 활동이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면서 학생 개인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유능감이 향상되고, 구성원들간 상호 의존하는 경험을 통해 협업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임희진, 문호영과 정정호(2018)의 연구에서 청소년 참여활동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연구 대상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그런 것들은 좁은 공간에서 살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사회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넓은 세상에 나와 있고 나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응답했다. 모상현, 조남억과

이진숙(2012)의 연구에서도 “학교도 축제 같은 게 있는데 거의 관중에서 바라보는 거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내가 직접 준비한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른 교육(영상제작, 스피치교육 등)들이 있다. 그런 걸 배울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응답은 교외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유능감 향상에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현재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아리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오혜섭, 최인재, 염유식, 2018). 학교 밖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는 청소년들의 자아유능감 및 협업능력 향상, 더 나아가 참여적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자아유능감은 교외 동아리활동과 협업능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교내 동아리활동의 경우에는 자아유능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매개적 구조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교외 동아리는 교내 동아리보다 구성원들 간의 협동, 개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무성이 강조된다는 위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동아리활동의 운영방식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역량에 대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보다 세밀한 동아리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이 아닌 특정 인물이 주도하는 집단은 구성원 간 상호의존을 약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유능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책무성(individual accountability)을 고려한 동아리 운영 방안의 모색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실현장에서는 협력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특정 내용의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는 직소(jigsaw) 모형 교수학습을 진행하거나(Aronson, 1978), 학습 운영에 모든 학습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인 1역을 부여한다.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도 집단 구성원에게 개인적 책무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공동의 성과를 위해 기여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별적 책무성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집단 내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을 초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협업이 와해될 수 있다(Aronson, Wilson, Akert & Sommers, 2015). 자아유능감과 협업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학습된다. 동아리활동과 같은 외적 자산의 토대 하에서 청소년들은 자아유능감과 같은 내적 자산을 형성하

게 된다. 이러한 발달자산의 증대는 협업능력의 향상 및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다. 추가적으로, 후속 연구에서 동아리 내의 역할인식에 따른 개별 구성원들의 협업능력 차이를 살펴본다면, 개별적 책무성이 협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동아리 참여 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_{(df=3,2517)}=.42, p=.742$; 표 5 참조). 사회 내에서는 자율동아리에 대한 계층간 격차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자율동아리는 주로 유사한 진로 계획을 가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공식 동아리로, 입시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소득, 고학력 부모를 둔 자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다(황여정, 2018;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학교 등의 기관에서 인정한 정규동아리를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활동과 경제적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서는 한 학년에 한 개의 자율동아리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규 동아리활동은 많은 분량을 기입할 수 있게 하였다(교육부, 2018). 이러한 정책적 방안은 청소년들이 자신과 유사한 흥미, 관심을 가진 동료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계층 간 차이를 최소화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학생부 기입 전면 폐지를 권고하였다(교육부, 2019). 교외 동아리활동이 자아유능감 및 협업능력 향상에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했을 때, 위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학교업무정상화(청소년단체 활동) 이행 계획」 공문을 시행했다. 과도기적 단계 없이 단행한 이와 같은 조치는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의 가치를 저하하고, 활동 참여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모의 사적 자원이 자녀의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동아리활동의 효용을 고려했을 때, 부모의 사적 자원의 영향력은 최소화하면서도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설계된 국가 수준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1차년도 데이터 및 설문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만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아리활동은 일회성의 활동이 아니고 지속적인 활동이므로,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참여

및 관련변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영선과 조아미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중1부터 고2까지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 수준이 증가 하였으며, 특히 중3에서 고1의 전환기 때에는 그 증가폭이 두 배 이상에 달하였다. 또한, 송수지, 김정민과 남궁지영(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동아리활동 참여는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본 연구에서 주목한 동아리활동, 자아유능감 및 협업능력의 변화궤적, 종 단적 상호관계 등을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인애, 정은실 (2010). 팀 구성 방식에 따른 학습활동 만족도: 질적 자료 분석에 의한 사례연구. **교육방법연구**, 22(3), 67-95.
- 곽윤정, 장선영 (2015).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용을 위한 교육체계 수립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573-597.
- 관계부처합동 (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 (2019.3.2. 인출)
- 교육부 (2015). **사회과 교육과정**.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 2015 개정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 연구**.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보도자료 2018.8.17.)
- 교육부 (2019).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보도자료 2019.11.28.)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연구 III: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0-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정 (2016). 자존감 2요인 모델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3), 411-434. doi:10.22257/kjp.2016.09.35.3.411
- 김정주, 김용대, 성기원 (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연구보고 03-R06).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모상현, 조남익, 이진숙 (201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012-15). 서울: 여성가족부.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연구보고 11-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1), 121-147.
- 여성가족부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 오해섭, 최인재, 염유식 (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연구보고 18-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소연 (2019). 우리나라 학생의 협력에 대한 태도. **사회과교육**, 58(1), 99-110.
- 이승렬 (2013). 청소년 동아리 조직유형별 활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0(10), 407-431.
- 이학식, 임지훈 (2005). **SPSS 12.0 매뉴얼: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서울: 법문사.
- 임희진, 문호영, 정정호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연구보고 18-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문호영, 조남억, 김평화 (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V**(연구보고 17-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성연, 최병연, 이혼정, 고영남, 이영미 (2010). **협동학습 모형 탐색**. 서울: 학지사.
- 조남억 (2010).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단체활동의 연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83-104.
- 진영선, 조아미 (2016).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동아리활동 참여 수준 변화 및 유형과 특성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2), 25-40.
- 황여정 (2018).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기회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5(1), 43-69.
-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 (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연구보고 13-R14-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onson, E. (1978). *The jigsaw classroom*. Beverly Hills, CA: Sage.
- Aronson, E., Wilson, T., Akert, R., & Sommers, S. (2015). *Social Psychology* (9th ed.). New York, NY: Pearson.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dwell, W. L., Wildman, J. L., DiazGranados, D., Salazar, M., Kramer, W. S., & Salas, E. (2012). Collaboration at work: An integrative multilevel conceptualiz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2(2), 128-145. doi:10.1016/j.hrmr.2011.11.007
- Benson, P. L. (1997). *All kids are our kids: What communities must do to raise*

- caring and responsible children and adolescents*. San Francisco: Jossey-Bass.
- Griffin, P., & Care, E. (20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New York: Springer.
- Johnson, D. W., Johnson, R. T., & Stanne, M. B. (2000). *Cooperative learning methods: A meta-analysi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Leffert, N., Benson, P. L., Scales, P. C., Sharma, A. R., Drake, D. R., & Blyth, D. A. (1998). Developmental assets: Measurement and prediction of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2*, 209-230. doi: 10.1207/s1532480xads0204_4
- Mruk, C. J. (2013). *Self-esteem and positive psycholog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http://www.oecd.org/pisa/35070367.pdf> (2019.5.2. 인출)
- Rogoff, B., Baker-Sennett, J., Lacasa, P., & Goldsmith, D. (1995). Development through participation in sociocultural activity.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5*(67), 45-6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rrod, L. R., Torney-Purta, J., & Flanagan, C. A. (2010). *Handbook of research on civic engagement in youth*.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book/10.1002/9780470767603> (2019.3.1. 인출)
- Tafarodi, R. W., & Milne, A. B. (2002). Decomposing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70*(4), 443-484. doi:10.1111/1467-6494.05017
- Tafarodi, R. W., & Swann Jr, W. B. (1995). Self-lin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2), 322-342. doi:10.1207/s15327752jpa6502_8
- Youniss, J., McLellan, J. A., & Yates, M. (1997). What we know about engendering civic identi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 620-631. doi:10.1177/0002764297040005008

ABSTRACT

The effect of adolescents' club activities on collaborative abil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etence

Chun, Jaba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articipation in adolescents' club activities and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et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ub activities and collaborative abilities. The dataset of the 1st year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was used and 2,526 adolescents were selected.

First, adolescents can be classified into four-groups (in/out school clubbers, in-school clubbers, out-school clubbers, and low participators); low participators made up the highest percentage. Seco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economic status of families across club activities were detected. Third, in/out school clubbers show the highest score in terms of self-competence and collaborative abilities, followed by out-school clubbers, in-school clubbers, and low participators.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etence was identified. Interestingly, self-competence mediated the effect of out-school club activities on collaborative abilities, not in-school club activiti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connection club activit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youth groups and highlighting the individual accountability of each club member were suggested.

Key words: club activities, collaborative abilities, self-competence, positive youth development(PYD), developmental assets framework, KCYPs 2018

투고일: 2019. 12. 7, 심사일: 2019. 12. 20, 심사완료일: 2020. 1. 17

* Seoul National University